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래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도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이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뒹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에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에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허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핏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정보망이다. 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 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 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퓔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

계에서는 모두가 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회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툰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상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아) 영화 '네버 렛미고'에서는 복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완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서는 인간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제 인간의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다. 장기 이식을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후 몇 번의 반복된 수술을 거친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복제 인간들의 장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자)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한편 장자는 자연스러운 본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로써 자급자족과 평등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등은 인간과 사물의 자연적 본성은 같다고 보는 장자의 만물제동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에는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사물에 대한 귀천, 고하, 시비, 선악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 즉 편견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장자의 견해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소요의 경지나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제물의 경지는 모두 장자가 추구한 도를 따르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시오. **[20점, 400-420자]**